

#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실적과 전망

김두환 |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dhkim@lh.or.kr

## 1. 들어가며

2026년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 흐름을 개척”했다고 하면서, 평양시 5만 세대 주택 건설, 11만여 세대 농촌주택 건설과 함께 ‘지방발전 20×10 정책’을 5개년 계획 기간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sup>1)</sup> 대규모 ‘주택’ 건설사업은 시멘트 등 북한이 자체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추진할 수 있어,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성과를 내기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하지만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설비와 원자재 조달, 공장 운영과 유통이 얽힌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더군다나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외부 재원과 기술을 활용한 공업화와 수출산업 육성이 필요한 조건에서(조동호 외, 2002; 이석기, 2013), 내수용 ‘지방공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경제성장 효과도 제한적이고 소기의 성과를 내기도 어려울 수 있다.

정책을 실행하기도, 경제발전의 성과로 이어지기도 힘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책 실행 3년째에 접어든 시점에서 지금까지 실적과 성과는 어떠한가, 향후 지속가능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먼저 『로동신문』의 관련 기사와 선행연구<sup>2)</sup> 등을 바탕으로 이 정책의 실적과 성과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1) “총결기간 우리 당의 투쟁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것은 전국의 시, 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창한 혁명이 개시된 것이다. ... (중략) ... 지방공업공장들을 완전히 새롭게, 선진적으로 재건하기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 정책은 전국인민들의 전적인 지지속에 당해년도에 과학과 보건, 문명생활분야를 아우르는 다방면적이고 폭넓은 지방발전정책으로 확대심화되었다.”(『로동신문』, 2026. 2. 26).

2)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분석과 평가 관련 연구로 김수경(2024), 이상근(2024), 최지영(2024), 현대경제연구원(2024; 2025), 이경희(2025), 이강균·김범환(2025), 한기범(2025), 토지주택연구원(2024; 2025a; 2025b; 2026) 등이 있다. 본문 중에 별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내용은 토지주택연구원 각 호를 참조했다.

추진 주체인 북한 당국이 이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성과로 선전하며 어떻게 발전시키려 하는지를 살펴본다. 끝으로 정책의 의도와 목적, 지속가능성 여부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함의와 전망을 토론 차원에서 제시한다.

## II.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연도별 실적

〈표 1〉 《지방발전 20×10 정책》 1·2·3차 연도 대상 시·군

구분	1차 연도(2024년)	2차 연도(2025년)	3차 연도(2026년)
평양직할시		강동군	강남군
남포특별시	온천군	룡강군	대안구역
개성특별시	장풍군	개풍구역	판문구역
평안남도	성천군, 속천군	신양군, 북창군, 은산군*	평원군, 맹산군
평안북도	구성시, 구장군, 운산군	대관군, 염주군	선천군, 신의주시
함경남도	함주군, 금야군	정평군, 신포시	락원군, 신흥군, 리원군*
함경북도	경성군, 어랑군	길주군, 부령군	무산군, 명간군
황해남도	재령군, 은천군	배천군, 장연군	은률군, 송화군
황해북도	은파군, 연탄군	곡산군, 황주군	신평군, 봉산군
강원도	고산군, 이천군	세포군, 철원군	통천군, 평강군
자강도	우시군, 동신군	랑림군, 장강군	시중군, 화평군
량강도	김형직군	김정숙군	삼수군

주: 1) 매년 지방공업공장 20개소.

2) 별도 사업: 2025년: 총이공장 1개소(은산군), 바닷가양식사업소 1개소(리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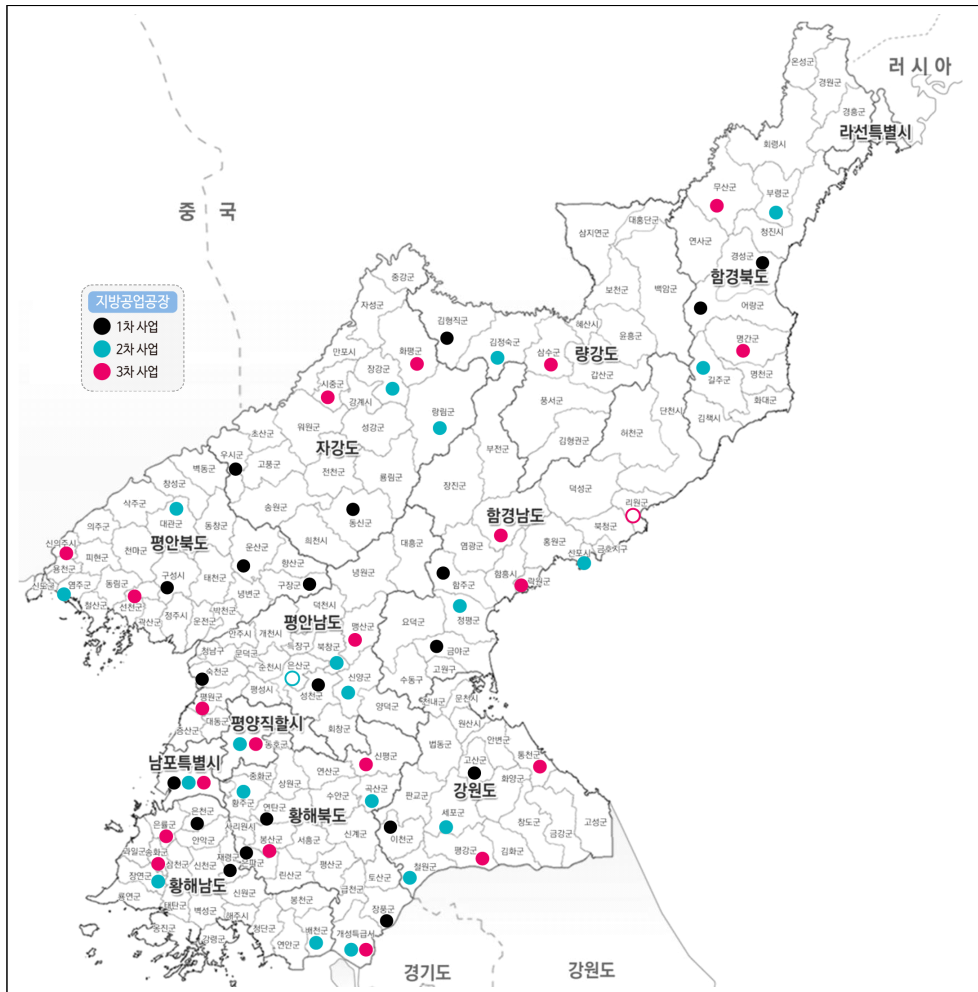
자료: 1, 2차 연도는 토지주택연구원(2026), 3차 연도는 『로동신문』의 각 사업 착공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

북한은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공식 선포하였다. 이 정책은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전국 모든 시·군의 초보적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건국 이래 최초의 사변적 결단’이자 ‘지방공업혁명의 강력한 추진’으로 규정하였다.

정책의 공식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로동신문』, 2024. 2. 13). 첫째, ‘지방공업혁명의 강력한 추진으로 지방의 세기적인 낙후성을 털어 버리고 지방 인민들의 숙망을 풀어 주어 전국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둘째,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수준 이상으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을 매해 20개 군씩 건설하여, 10년 안에 모든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전국적 판도에서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킨다. 셋째, ‘지방공업을

전면적,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매 지역경제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서로 경쟁하는 풍조를 만들어 다각적인 장성을 추동'한다. 정책 추진은 당 중앙이 비상설추진위원회를 통해 책임지고 관리하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 노력, 자재는 중앙당이 직접 보장하고 공장 운영은 지방당국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림 1] 《지방발전 20×10 정책》 1·2·3차 연도 대상 시·군



주: 1) 온산군(종이공장)과 리원군(바닷가양식사업소)은 매년 20개 지방공업공장과 별도 사업이나, 연관성이 있어 지도에 표시하였음.  
 2) 자료의 한계로, 지도의 행정구역이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을 모두 반영하지 못함.  
 - 예, 삼지연군 → 삼지연시, 개성특급시 → 개성특별시(강릉군 포함) 등  
 자료: 토지주택연구원(2025b, p.39)에 3차 연도를 추가하여 작성.

## 1. 1차 연도(2024년): 중앙 주도 지방공업공장 건설 시작

2024년은 “지방 변혁의 원년”으로 정책의 기틀이 세워지고 1차 사업 대상지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1월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 정책을 공식화한 직후, 북한은 당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지방발전 20×10 비상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방성 주도하에 ‘조선인민군 제124연대’를 창설하여 전국 각지에 파견하였다.

1차 연도 사업 대상지는 남포시 온천군, 개성시 장풍군, 평안남도 성천군과 속천군 등 총 20개 지역으로 확정되었다. 통일부의 위성분석 결과를 보면(『뉴스1』, 2024. 7. 23), 각 공장의 부지 면적은 1.6만~4만㎡이며, 축구장 2.2~5.6배로 한국 농공단지 평균 면적의 약 1/6 수준이다. 건물은 공장 별로 2~6개 동(건물 총면적 3천~7천㎡)이었다.

2월 28일 성천군 착공식을 시점으로 전국의 대상지에서는 기초식품(간장, 된장, 기름), 일용잡화(비누, 종이, 수지 제품), 피복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건설이 시작되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성천군 착공식에서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발언을 통해 지방 민민의 생활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로동신문』, 2024. 2. 29). 군 건설자들은 10개월 만에 골조와 마감 공사를 완수하고, 12월 20일 성천군 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김형직군 공장까지 20개 전 지역의 공장을 모두 완공하였다.

## 2. 2025년: 사업 범위 확장(생활 인프라 도입)

2차 연도인 2025년은 정책의 목표가 ‘단순 공장 건설’에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으로 진화한 전환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4년 8월 지방공업공장 현지지도 등을 통해 시·군 병원과 과학기술보급소, 양곡관리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3대 필수대상’ 병행 추진을 지시하였고, 이후 2024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하였다(현대경제연구원, 2025).

2차 연도 대상지에는 평양시(강동군)가 새롭게 포함되었고, 남포시 룡강군, 개성시 개풍구역, 평안남도 신양군과 북창군 등 20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모든 시·도에 골고루 배치했는데, 평양시와 남포시, 개성시, 량강도는 1개 군(구역), 나머지 도는 2개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 대상 지역 중 시(市)는 함경남도 신포시가 유일하다. 특히 강동군에서는 병원과 종합봉사시설, 룡강군은 병원, 정평군과 개풍구역은 종합봉사소, 황주군에서는 양곡관리시설 건설도 병행하였다. 그 외에 평안남도 은산군에서는 종이공장을 건설하였다.

### 3. 2026년: 패키지형 건설 전면 확대

3차 연도인 2026년은 정책 추진 3년 만에 국가의 “근 3분의 1이 개벽”되는 성과를 목전에 둔 시기이다. 1월 29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황해남도 은률군 착공식을 필두로 평안남도 평원군과 맹산군,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선천군, 평양시 강남군 등 20개 지역에서 건설이 시작되었다. 2차 연도와 마찬가지로, 1개 군(구역)만 선정한 평양시, 남포시, 개성시, 량강도 이외 나머지 도 지역에서는 2개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대상 지역 중 시(市)는 평안북도 신의주시 1곳이다.

2026년에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공업공장, 보건시설, 종합봉사소를 한꺼번에 세우는 ‘패키지형 건설’을 모든 지역의 기본 목표로 상정하였고, 20개 지역의 사업을 모두 연내에 준공할 계획이다(『로동신문』, 2026. 1. 30; 2026. 2. 26). 이와 별도로, 함경남도 리원군에는 신포시에 이어 현대적인 바닷가양식사업소가 추가로 건설되며(『로동신문』, 2026. 1. 31), 신의주시 온실종합농장지구 주변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시도(『로동신문』, 2026. 2. 28)는 ‘농촌 진흥’과 ‘지방 공업’의 유기적 결합을 상징한다.

## Ⅲ. 정책의 성과

### 1. 연도별 정책 목표의 확장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시작 이후 단계적으로 목표가 확장되었다. 1차 연도(2024년)에는 경공업 공장(식료공장·옷공장·일용품공장) 건설에 집중하였다. 이후 2024년 8월 31일 지방발전사업협의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기존 공장 건설에 더해 ‘3대 필수대상’(보건시설, 과학기술보급중심, 양곡관리시설)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2024년 9월 9일 정권창 건설 연설에서는 ‘지방발전 정책의 완벽한 실행’을 강조하였다.

2024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는 지방발전 정책을 별도 의제로 상정하여 집중 토의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건국 이래 최초의 사변적 결단이며 전례 없는 방대한 창조투쟁’으로 규정하고 ‘3대 필수대상’의 2차 연도 포함을 공식 결정하였다. 아울러 각급학교 교사(校舍) 신축을 통한 ‘교육토대 강화’도 지방발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가되었다.

2차 연도(2025년)에는 병원과 종합봉사소, 양곡관리시설을 시범적으로 병행 건설하였으며,

바닷가양식사업소 건설을 지방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포함하여 수산업 기반 강화를 도모하였다. 3차 연도(2026년)에도 동일한 확장 방향을 유지하면서 리원군 바닷가양식사업소 건설이 추가되었다. 또한 3차 연도부터는 지방공업공장, 보건시설, 종합봉사소를 같이 건설하는 것을 모든 대상 지역에 적용하고, 연내 착공과 준공을 완료하도록 했다.

## 2. 생산 품목과 생산량 증대

1차 연도 20개 시·군 공장은 2025년 4월 이후 본격적인 생산에 진입하였다. 『로동신문』(2025. 8. 18; 2025. 10. 23)은 공장별 구체적인 생산 실적을 보도하였다.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준공된 공장들은 본격 가동 수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 시기 기준으로 이전 공장들과 비교하여 괄목할 만한 생산 지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재령군과 장풍군 식료공장의 생산장성률이 각각 576.5%, 375.8%에 달했으며, 이천군과 동신군 일용품공장의 순소득액은 740.8%, 618.5% 증가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함주군에서는 식료, 일용품, 옷공장의 평균 생산 증가율이 500%를 상회하며 주민 1인당 생필품 배급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산군 옷공장과 금야군 옷공장 역시 순소득액이 각각 10.7배와 수십 배 증가했다고 한다.

새 제품개발사업으로 지방공업공장의 생산 품목도 늘어나고 있다. 식료공장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산품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일용품공장과 옷공장도 창조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성천군 식료공장은 성천약밤을 원료로 하는 정과, 단졸임, 단묵 등을, 과수 고장인 고산군의 식료공장은 사과병졸임과 배병졸임을, 산간지역인 김형직군과 동신군 식료공장들은 돌배, 다래, 머루, 오디로 음료를 생산하고 있다.

## 3. 지방공업공장 운영 여건 개선: 원료공급망·상점 등 정비

북한 당국은 공장 가동의 지속성을 위해 원료기지 조성을 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하였다. 기름작물(해바라기, 수수나무, 피마자 등) 재배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도록 독려했고, 각 시·군당 책임비서가 원료기지 조성을 직접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도 단위에서도 원료기지 조성을 지원하는 체계가 갖추어졌으며,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자료를 과학기술전당에서 온라인으로 보급하였다.

상업 유통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북한 당국은 2차 연도 사업에서 각 시·군에

현대적 양곡판매소와 종합봉사소 건설을 추진하였다. 『로동신문』(2025. 8. 18)은 1차 연도 공장 생산물의 '지역 상업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주민들의 상점 이용이 증가하고 소비가 활성화하는 체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4. 지방 주민의 생활 여건과 의식 변화

북한 당국은 공장 가동 이후 지방 주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적극 선전하고 있다(임을출, 2025). 성천군의 경우 준공 반년 만에 통조림, 과자, 유제품, 두부 등 수십 종이 지역 내에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김형직군 공장은 개장 첫 달부터 주민들에게 통조림, 과자, 두부 등 부식물을 추가로 공급하였다. 또한 공장 노동자의 상당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급을 통해 아이들 학용품 구입, 의약품 구매, 식료품 소비가 이전보다 개선되며 지방 도시에서 시장을 통한 기초 소비재 구매 모습이 이전보다 쉽게 발견된다고 한다.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은 대체로 도당 책임비서가 준공사를 하고 군당 책임비서가 축하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설의 주된 내용은 '친인민 정책'을 칭송하고 완공된 공장의 '정상 가동'을 다짐하는 것이었다(한기범, 2025). 『로동신문』은 당이 마련한 공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아버이의 은덕"을 체감한다는 선전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냈다.

### IV. 함의와 전망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의도와 목적, 지속성 여부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함의와 전망을 토론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 1. 생존과 안정을 위한 자력갱생 전략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대해, 김정은 집권 초기 전국적 경제개발구 지정 등 '부분적 대외개방'을 추진하던 경제성장 전략을 자력갱생을 위한 '내생적 지방산업 육성' 전략으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방공업공장 건설 정책은 북한과 같은 인구·경제·산업 조건에서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비합리적인, 따라서 지속하기 어려운 (경제성장) 전략이 된다.

그런데 ‘지방발전 20×10 정책’과 ‘농촌살림집 건설 정책’ 등은 ‘경제성장 전략’이라기보다 체제 안정을 위한 정치적 과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각 시·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원료기지를 조성하고 경공업 공장을 가동하는 방식은, 국제 제재하에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인민들의 최소 생활 수준을 보장하려는 처방이다. 2024년 12월 당 전원회의 결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발전 정책을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을 위한 절박한 과제’이자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대 혁명’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이 정책을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닌 체제 정당성 확보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치적 투쟁 과업으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정균·김범환, 2025; 이상근, 2024).

북한은 핵무력 강화 원칙을 상위에 두고, 경제성장을 미루는 대신 체제의 생존과 안정을 선택했다. 그 핵심은 인민의 의식주 보장이고, 이를 위해 전국적 대규모 주택 건설과 지방공업공장, 생활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생존과 안정에 집중하는 것은 지정학적 충돌이 빈발하는 가운데 “다극화된 세계건설”을 지향한다는 북한에는 일면 합리적이고 강한 정치적 의지를 추동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정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은 별도의 문제일 것이다.

## 2.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뒷받침하는 추진 동력

이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에는, 북한 당국의 추진 의지와 더불어 대외경제 환경 변화가 함께 작용했다. 대러 관계 측면에서, 북한은 2023년 7월 이후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포탄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 대가로 식량, 일용품, 소재, 부품 등 다양한 물자를 수입하였다.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약 9천개의 컨테이너를 통해 소재와 부품이 북한에 유입되었다(『연합뉴스』, 2024. 2. 27). 이러한 물자 유입은 공장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이상근, 2024).

대중 관계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2025년 북중 무역액은 약 27억달러로 전년 대비 25.5%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26). 특히 대두유, 합성필라멘트 직물·플라스틱 등 경공업 중간재 수입이 크게 늘어, 지방공업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추정된다(이석기, 2026).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성과는 북한 당국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조직 동원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국제 제재의 틈새를 활용한 러시아·중국과의 경제관계 개선을 통한 중간재와 자재 수입 확대가 정책 추진의 물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두 요인의 결합이 북한 당국이 목표한 속도와 규모로 공장 건설과 가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전망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실현’이자 ‘지방공업 혁명’이며, 북한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삼는 국가 전략이다. 그러나 2026년 제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과 국가가 현대적인 생산기지, 봉사기지를 새로 꾸려준 지 1년도 못되어 관리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지도통제도 소홀히 하는 극도의 태만과 무책임성, … (중략) … 목전의 리득에만 치중하는 고질적인 병집들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듯(『로동신문』, 2026. 2. 24), 공장을 건설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이 정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가는, 결국 북한 당국의 의지와 지원, 지방 당국의 운영 역량, 그리고 대외관계 여건과 연관된 설비 공급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이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로 추진되어서 지속하기도 성공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나 체제에서도 경제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도 ‘사회주의 경쟁’, ‘가격체계 개선’ 등 여러 수단으로 공장 운영 효율화를 시도하고 있어, 체제 안정의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과 성공 가능성을 낮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정책의 진짜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서 불거질 수 있다. 생존 위협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번영을 미루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의 성공으로) 생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 생존에만 만족하는 사람도 집단도 거의 없다. 생존 문제 해결 이후의 기대심리 상승이 체제 안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인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를 더 도약시키려면 ‘대외관계 개선으로 외부 자본과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하는데, 대외관계 개선의 시금석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여부다(조동호, 2024). 한국 기업도 못 들어가는 곳에서 다른 나라의 투자자를 찾기는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하는 게 “국익에 준한 맹렬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은 아닐 것이어서, 이를 고려한 유연한 전략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수정,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분석과 전망」, 『월간 KIET 산업경제』, 2024년 10월호, 2024, pp.38~48.
- 이경희,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한 대북 협력사업 검토」, 『NK FOCUS』, No.2025-01,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2025. 3.
- 이상근,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의 특징 및 파급영향」, 『INSS 전략보고』, No.259,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 4.
- 이석기,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남북한 경제협력 과제」, 『국토』, 2013, pp.28~35.
- \_\_\_\_\_, 「2025년 북한 산업 평가와 2026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6년 1월호, 2026, pp.62~76.
- 이정균·김범환,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25-04, 2025.
- 임을출, 「새로운 대북 개발협력 구상: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과 SDGs와의 연계」, 『수은 북한경제』, 2025년 겨울호(통권 제87호), 2025, pp.3~45.
- 조동호, 「최근 북한의 정책 변화 분석: ‘두 개의 국가론’과 지방발전정책을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5월호, 2024.
- 조동호 외,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2002.
- 토지주택연구원, 「북한 건설개발 동향」, 2024년 1, 2/4분기, 2024.
- \_\_\_\_\_, 「북한 건설개발 동향」, 2024년 3, 4/4분기, 2025a.
- \_\_\_\_\_, 「북한 건설개발 동향」, 2025년 1, 2/4분기, 2025b.
- \_\_\_\_\_, 「북한 건설개발 동향」, 2025년 3, 4/4분기, 2026.
- 최지영,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배경과 시사점」, Online Series, CO 24-10, 통일연구원, 2024. 2. 2.
- 한기범,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평가: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 시사점」,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5. 04. 10.
- 현대경제연구원,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분석과 전망」, 『경제주평』, 24-05(통권 963호), 2024. 3. 22.
- \_\_\_\_\_,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2차년도 사업 분석 및 시사점」, 『현안과 과제』 25-04, 2025. 4. 18.

- \_\_\_\_\_, 「2025년 북한 경제 평가 및 시사점」, 『경제주평』, 26-02(통권 1003호), 2026. 1. 23.
- 『뉴스1』, 「“北지방공장, 건물은 2~3층·부지 축구장 2~5배”…통일부, 위성분석 첫 공개」, 2024. 7. 23.
- 『로동신문』,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현을 위한 첫 착공에 즈음하여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성천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에서 하신 연설」, 2024. 2. 29.
- \_\_\_\_\_,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의 생활력이 과시되고 있다 -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선 시, 군들에서」, 2025. 8. 18.
- \_\_\_\_\_, 「우리 당정책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은을 낸다 - 20개 시, 군들에 일떠선 새 지방공업공장들에서」, 2025. 10. 23.
- \_\_\_\_\_, 「지방혁명의 전면적인 확대고조를 향한 새년도 투쟁의 기세찬 발화 - 은룡군 지방발전 정책대상건설착공식 성대히 진행」, 2026. 1. 30.
- \_\_\_\_\_, 「전면적발전의 새시대를 펼친 성스러운 5년」, 2026. 1. 31.
- \_\_\_\_\_,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5일회의 진행 -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2026. 2. 24.
- \_\_\_\_\_,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2026. 2. 26.
- \_\_\_\_\_, 「위대한 당은 재난의 섬을 보물섬으로 전변시켰다」, 2026. 2. 28.
- 『연합뉴스』, 「신원식 “러 컨테이너 9천개 북한으로 넘어가…北식량값 안정”」, 2024. 2. 27.